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달라질 인간의 삶과 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갖지 못하는 ‘감수성’과 ‘창의력’ 등이 주목받는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

이러한 교육 방법의 하나로 ‘예술교육’이 뜬다. 예술교육은 예술을 통해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는 교육.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창의적 자아 표현 능력, 통합적 사고력 등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방식이다.

예술교육은 교육부도 나서서 강조하는 상황.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교사 연수,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예술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학교 현장의 예술교육도 지원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수업 시간에 예술교과를 융합하는 등 독자적으로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교사들에게 예술교육은 생소한 것도 사실. 서울특별시가 출연·설립한 문화·예술분야 재단법인인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 확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문화재단은 기존에 운영해 온 초등생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올해 중학교로까지 확장시켜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해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술교육이란 무엇이며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사업을 총괄하는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에게 예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묻고 들었다.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

예술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교육’

과거 예술교육은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예술전문가로 키우는 영재교육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 예술교육은 예술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기술이나 기량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예술적 감성’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을 일컫는다.

임미혜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본부장은 “예술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하는 법 또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술교육”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보자. 과거 음악수업은 학생들에게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준 뒤 교사가 해당 음악가 3인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이를 숙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임 본부장이 말하는 ‘예술교육’이 접목된 음악수업은 실생활과 연관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연필로 글 쓰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등을 녹음하고 여러 리듬을 활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친구들과 공유해보는 식.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천재들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충분히 음악을 만들 수 있구나’와 같은 생각을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임 본부장은 “정답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학생들은 다양한 예술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상상할 수 있는 힘, 창의성을 키운다”면서 “예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적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로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의 모습. 서울문화재단 제공

예술교육, 실현에 옮기려면? 평가·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워주는 예술교육.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예술교육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문예술교육프로그램 ‘예술로 함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서울시내 중학교 374개교 중 81개교, 540개 학급을 선정해 대규모로 지원했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는 예술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임 본부장이 총괄한 ‘예술로 함께’를 통해 예술교육의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예술로 함께’에 참여했던 서울 송곡여중 학생들은 3, 4명씩 모둠을 이루어 여러 가지 동물 혹은 사물을 몸으로 표현해보고, 나머지 학생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학생의 그림자를 보며

어떤 사물, 동물을 표현한 것인지 맞춰보는 미술 수업을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해당 학교로 파견돼 수업을 진행한 예술가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림자를 통해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보는 거예요” “빛이라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는 어느 누구든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본래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으면 해요”라고 끊임없이 말하며 예술 활동에 의미를 부여했다. 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과 인성, 협동심은 물론 자존감까지도 균형적으로 키우도록 한 것.

임 본부장은 “단순히 재미있게 놀고, 연극을 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해보는 것”이라면서 “이성과 감성이 골고루 발달하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주제적 사고, 공감능력 등 인문적인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예술교육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예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선 교사들이 ‘평가’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교육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교사가 갖고 있던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한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를 탐색하면서 성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예술교육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예술교육의 혜택을 누리고, 이를 통해 예술의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임 본부장)

▶글·사진 최송이 기자 songil21@donga.com